

“현장이 완성하는 산업전환 일자리 로드맵”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출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과 함께 주요 업종별 일자리전망 등 공유
- 분과별 집중 논의와 범부처 협업,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6월 기본계획 발표 예정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제1기 전문가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0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2기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2기 포럼은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단체와 함께 현장 수용성과 실질적인 체감도 높은 정책을 완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분석한 주요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과 일자리 전망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제품 구조와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 규모별 전환 속도 격차가 존재했다. 한편, 영남권역 등 기존 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 중소 협력사들이 집중되어 향후 산업전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SW 연구개발, 배터리 시스템 연구개발 등 직무는 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위기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ISC가 공유하는 내용과 같이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을 수시로 면밀히 살펴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가야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지역 거점 산업 구조 특성상 산업전환 충격이 지역 고용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단위 밀착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노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2기 1차 회의 개요
-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득영 (044-202-7412) 노선영 (044-202-7407)



붙임1**‘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2기 1차 회의 개요**

□ 일 시: ‘26. 4. 10.(금) 14:00~17:00

□ 장 소: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9층

□ 참 석

○ (노동부) 차관,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

○ (포럼위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좌장) 등 18명

□ 논의주제

○ 제2기 포럼 운영계획 및 주요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 등

□ 진행순서

※ 인사 말씀까지 공개

시간		내용	비고
14:00~14:0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노동부
14:02~14:10	‘8	인사말씀 (차관 → 포럼 좌장 조성재 順)	차관, 좌장
(이하 비공개)			
14:10~15:00	‘50	발제	산업별인적자원 개발위원회
15:00~16:50	‘110	자유토의	
16:50~17:00	‘10	마무리 말씀	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입니다.

오늘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조성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기 포럼이 산업전환 일자리 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였다면, 오늘 출범하는 2기 포럼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입니다.

본격화된 AI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흐름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의 사후적 수습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기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서 발제해 주실 내용처럼 업종별 세부 데이터를 수시로 면밀히 살피며,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공적인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만들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입니다. 산업전환의 격변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직무 축소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업·리스킬링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하고,
배터리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직무와 신산업 생태계에서
요구하는 혁신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주력 산업의 지역적 밀집도를 고려하여
산업전환의 파급효과가 지역 고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복합 전환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범부처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번 2기 포럼 논의를 거쳐 정교화하겠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노사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포럼 위원 여러분의
객관적인 고견과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해안을 나침반 삼아
기본계획 로드맵을 완성하고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